



진안군 안전재난과, 농촌일손돕기 참여

진안군안전재난과 직원들은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안전면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안전재난과와 안전면 직원들이 힘을 합쳐 안전면 사과농장에서 사과작업과 농업환경 정비 등을 도우며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돕기 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적기에 군청 직원들이 도와 준 것에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정흥기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 인력난을 호소하는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 찾아가는 범죄 예방교실 진행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에서는 26일 남원초에서 소규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선제적 범죄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학급별 배부한 학교장담경찰관 포스터를 활용해 학교폭력 대응요령, 117 상담전화번호, 학교 전담경찰관 등을 안내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등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심 교육을 생활 속 거리두기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했다. 강태호 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등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25일 시민위원회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4건을 위원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진안군 수질개선협의회, 환경리더 양성 요람 개강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회장 김정길)는 26일 150만 전북도민의 식수인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을 위해 군민지원센터에서 제 13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은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관내 사회단체장,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해 열렸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2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환경전문가 등 18명이 강사로 초빙돼 환경 의식 개선 및 환경 보호 실천 방안, 비점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09년부터 13년째 운영 중인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민의식 개선과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며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정길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담호 자율관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

며, 환경대학을 통한 환경리더 양성이 구심점이 되었다"며 "환경대학 수강생들의 지속적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은 전 군민의 49%밖에 용담호 물을 먹지 못했지만, 지난 4월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2025년까지 진안군이 용담호 물을 먹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공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여름철 폭염 대응 구급대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6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대응 구급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평균기온은 보다 높고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난해 전북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80명 중 남원에서 11명(13.8%)이 발생하여 전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폭염 대응기간 온열질환자 발생을 대비해 구급차량에 얼음조끼, 얼음팩 등 9개 품목의 폭염구급장비를 적재하였으며, 구급대원에게 폭염관련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관할 구급차 부재를 대비하고자 펌블런스 9대를 지정해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초기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시설 점검능력 평가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26일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 '화재안전정보조사사의 점검능력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소방본부 주관하에 순창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사를 대상으로 하며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을 포함하여 직접 시설을 점검하는 실습교육, 점검능력 최종평가, 피드백 소통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등 원리 이론 교육 ▲시설점검 실습교육 ▲점검능력 실기평가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성수면 거주 최양순씨 수년째 장학금 기탁 '귀감'

성수면에 거주하는 최양순씨가 26일 군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최씨의 선행은 지난 2013년부터 9년째 이어온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씨는 "집안이 어려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계속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수년간 잊지 않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진안 정천면 면사무소·군청, 농촌일손돕기 '값진 구슬땀'

진안군 정천면(면장 김선화)은 26일 정천면사무소 직원 및 진안군청 관공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일손돕기는 정천면 모정리 용정마을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진행됐으며 함께한 공무원들은 사과열매 수확작업에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이 사과재배 농가는 오랫동안 겨울이 불편한 아내를 정성으로 간호하며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으로 사과열매 수확작업이 시급한 시기임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정천면장은 해당 농가의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농가는 "이 시기에 사과 열매 수확작업을 못하면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걸 알면서도 일손이 부족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이 일손을 보태주시 한시를 달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